이 편지가 도착할 무렵에 저는 만주 땅 위에서 총기를 들고 있을까요. 붓을 드는 법은 까맣게 잊은 채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지금 밤하늘이 유독 새카맣고 아득히 보입니다. 고향의 하늘에도 같은 별이 떠있겠지요. 저 하늘은 분명 한 개인데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 같습니다. 분명 기다란 바람이 이어져 뺨을 스칠 텐데 전혀 다른 촉감을 느낍니다.

어머니.

지난 날을 떠올리면 세상이 전부 거짓말만 같습니다.

뙤약볕 아래 계곡물에 멱 감던 소년들의 웃음이 그립습니다. 머리가 제일 크다고 제게 내어주신 쪽방에 틀어박혀 책장만 넘기던 순간이 그립습니다.

이곳은 첫날 밤이라 그런지 유독 잠 못 이루는 소년들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개중에 별똥별 같은 눈물을 흘리는 녀석들도 여럿 있습니다. 고향에서 받아온 편지를 품에 안고 뒤척이느라 밤새 바스락 거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려고 이렇게나 많은 사내아이가 모였다니 제 말로는 가늠이 안 되시겠지요.

땅이 꺼지지 않는 게 신기할 만큼이기도, 시장에 경성발 곡예단이 왔을 때 만큼이기도 합니다.

슬슬 망종이라 태양볕도 달아오르는지 집회마다 쓰러지는 아이들이 제법 보여요. 저는 집을 떠난 길목부터 잘 먹고, 잘 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은 접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는 길에도 저보다 덩치 큰 아이들보다 두 배는 산을 잘 올랐어요. 고향서도 원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들이 절실히 고픈 심정이시리라 생각하여 조금 채워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의 땅을 두 발로 딛고 서려면 열심히 무술을 익혀서 싸우고 저항해야만 하겠죠.

쉽지 않음을 알지만 이렇게 모인 사내들을 보고 있노라면 독립이 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어린 마음도 듭니다.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던가요?

이제부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지만, 틈이 나는 대로 편지 하겠습니다.

유월의 초입, 만주에서 당신의 아들 하현으로부터.